

일반논문

김보현 |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이향애 | 문헌설화 속 첩(妾) 소재 설화 연구

- 『기문총화』를 중심으로 -

이은우 | 서울 진적곳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

맹문재 |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고찰

- 여성이 부르는 가사를 중심으로 -

윤지영 | 천양희 초기시에 나타난 우울과 상징계적 질서의 상관성 연구

장미영 | 청년의 고립된 자아와 디스토피아적 상상력

-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김보현*

「차례」

1. 서론
2. 발화 대상과 발화 양태
 - 2.1 진리의 양태
 - 2.2 평가의 양태
 - 2.3 욕구의 양태
3. 이분화된 세계의 충돌 양상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혜경궁의 <한중록> 중 세 번째 회고록을 바탕으로 발화자 혜경궁의 발화 양태를 분석한다. <한중록3>에는 중심 사건 임오화변과 관련하여 혜경궁이 다양한 양태를 드러내는데, 본 논의에서 집중한 것은 진리, 평가, 욕구의 양태이다.

진리의 양태에서 참인 진리값을 갖는 것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사적으로는 애통하지만, 공적으로는 의리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값은 영조, 정조, 혜경궁 등 각 행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이는 혜경궁의 해석에 의해 도출된 양태이다. 평가의 양태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조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혜경궁은 이를 사도세자의 병증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욕구의 양태는 사도세자와 자신에 대한 혜경궁의 태도로 사도세자가 병이 없기를 바라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태도에서 마침내 사도세자가 죽기를 바라는 태도로 나아간다.

평가와 욕구의 양태는 진리의 양태와 서로 충돌하면서 혜경궁의 분리된 세계 인식을 드러낸다. 진리의 양태는 일반화된 사적 애통과 이데올로기화된 공적 의리로 구성된 이상 세계의 표출이고, 평가와 욕구의 양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고통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의 표출이다. 혜경궁이 구체화하는 현실 세계는 스스로 규정된 이상 세계가 공허한 거짓 세계임을 드러내면서, 이상 세계가 가정하는 도덕율에 의문을 제기한다.

핵심어 : <한중록>, 발화자, 발화 양태, 이상화된 세계, 현실 세계

1. 서론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는 영조 20년 10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된다. 세자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남편인 사도세자와 시부인 영조의 갈등으로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결국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를 잃는다. 이로 끝나지 않고, 아들 정조가 즉위한 후에는 정조와 친정이 갈등관계에 놓이고, 정조 사후에는 순조 뒤에서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에 의해 동생 흥낙임이 제거당하여 혜경궁의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

<한중록>은 혜경궁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회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¹⁾ 각 편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의도로 지어

1)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중록>을 기1, 2, 3, 4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정병설은 『병인추록』을 바탕으로 기2와 기3이 하나이며, 기3이 기2의 앞 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정병설, 『한중록』, 문학동네, 2010, 443~445쪽). 기2와 3이 자신의 가문이 죄 없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기2가 화완옹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기3에 서문이

졌는데, 이들을 묶어 편찬한 사람들이 〈한중록〉, 〈읍혈록〉 등으로 이름 붙였다.²⁾ 첫 번째 회고록은 정조 19년 혜경궁이 회갑을 맞이하던 해에 썼다. 전반부는 어린 시절과 궁중 생활 50년을 회고하고, 후반부는 자신의 부친과 일가들이 정적에 의해 모함당했음을 기술한다. 두 번째는 동생 흥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사당한 뒤에 쓴 글로, 순조에게 영조의 약속을 말하면서 기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 세 번째는 정순왕후가 승하한 이후에 순조에게 임오화변의 전모를 알리고자 기술한 것이다. 임오화변은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으로 〈한중록〉의 중심 사건이자, 정조와 혜경궁 홍씨 기문의 갈등 요인이다. 혜경궁은 이 세 번째 회고록에서 사도세자와 영조의 기행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낸다.

〈한중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원본 확정에 관한 연구,³⁾ 장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⁴⁾ 글쓰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⁵⁾ 심리학적 연구,⁶⁾ 비교문학적 연구,⁷⁾ 역사학적 연구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남

붙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회고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본 논의의 인용은 정병설 주석의 『원본한중록(문학동네, 2010)』에서 발췌한 것이며 한자는 병기하지 않았다. 인용문 쪽수는 『원본한중록』의 쪽을 표시한 것이다.

2) 〈한중록〉의 명칭은 〈閑中錄〉, 〈恨中錄〉, 〈한중록〉, 〈한중만록〉, 〈혜경궁읍혈록〉, 〈읍혈록〉, 제목 없이 보장된 것 등 다양하며, 현재 전해지는 이본은 20여종이다.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42~46쪽.

3)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71~198쪽.

4)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5)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연술의 정치학-한중록에 관한 제언적 독법」, 『여/성이론』 통권 제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122~139쪽.

6) 이금희, 「치유적 관점에서 본 〈한중록〉」, 『한중인문학연구』 제31호, 한중인문학회, 2010, 99~118쪽.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5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1~278쪽.

7) 손태수,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형단성 연구 : 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통권110호),

았다. 다만 다수의 연구들이 전체 〈한중록〉에 집중되면서 〈한중록〉의 의미가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도를 지닌, 즉 몰락한 가문에 대한 신원적 성격의 글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동일성, 일부 내용의 공통성, 목적 지향적인 서두 등으로 인해, 각 텍스트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록〉은 지어진 시기와 의도가 각각 다른 글이며,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편집되어 하나로 묶인 글이다. 글의 의미가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집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텍스트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각 텍스트에 대한 독립적인 시각의 연구도 필요하다.

물론 〈한중록〉이 여러 지점에서 가문에 대한 신원적 성격의 목적 지향적 글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중록〉에는 혜경궁의 발화 대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평가가 드러난다. 혜경궁은 사회적 지위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기문의 딸이기도 하지만 영조의 며느리, 사도세자의 아내, 정조의 어머니, 나아가 종사를 보존해야 하는 세자빈(신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인간이자 여성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한중록〉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홍씨 기문의 딸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 밖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혜경궁이 표출하는 의미는 간과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혜경궁의 위치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세 번째 회고록(이하 〈한중록3〉)을 바탕으로 발화자 혜경궁의 발화 대상에 대한 태도, 즉 발화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회고록에는 임오화변이 일어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43~269쪽.

박윤호, 「한일 여류일기문학의 자기서사적 특징 : 『한중록』과 『가게로닛기(蜻蛉日記)』의 허구의 의의식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64집,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2013, 151~169쪽.

8) 정은임,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문학적 성격Ⅱ-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인문과학논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7, 27~47쪽)와 다수의 논문은 역사와 문학의 상관성을 탐색하고 있다.

최성환, 「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 『역사교육』 115호, 역사교육연구회, 2010, 129~164쪽.

난 이유가 혜경궁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술되고, 사도세자, 영조, 선희궁 등 발화 내용의 행위자뿐 아니라 혜경궁 자신에 대한 양태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한중록3>에서 혜경궁의 발화 양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이며, 발화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2. 발화 대상과 발화 양태

발화 양태란 발화하는 내용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를 말한다. 발화 대상에 대한 태도는 발화자가 속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러한 세계 인식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의미적 기준이 된다. 발화 양태는 발화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해석자가 발화자의 발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중록3>의 발화는 텍스트의 발화자인 혜경궁의 발화와 혜경궁의 발화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영조, 사도세자, 선희궁의 발화가 있다. 인물의 발화에는 각 인물의 발화 대상에 대한 양태가 드러난다. 또한 행위자의 발화는 발화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발화 양태에는 발화자의 양태가 간섭될 수 있다. 말하자면, 영조, 사도세자, 선희궁의 발화 양태는 혜경궁의 양태가 개입된 해석된 양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중록3>에서 혜경궁의 발화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대상의 진리에 관한 양태, 대상에 대한 평가와 욕구의 양태가 두드러진다.⁹⁾ 각 양태는 의소들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진리의 양태는 참과 거짓, 평가의 양태는 긍정과 부정으로 대별되고, 욕구의 양태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혹은 상반된 대상에 대한 욕구에 의해

9) 최용호는 라스티에가 제시한 여러 양태를 존재, 진리, 양상, 인식, 의무, 욕구, 평가, 기호로 유형화하고 각 양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한다.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150쪽.

명확해진다. <한중록3>의 양태는 일관되게 나타난다기보다, 쓰기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서두와 결미의 양태와 본문의 회고에서 드러내는 양태가 서로 다른 의미적 지향을 드러내며 충돌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2.1 진리의 양태

<한중록3>의 서두와 결미¹⁰⁾에서 혜경궁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당시의 논란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임오화변’이라는 발화 대상에 대해 발화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중록3>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의 양태로 볼 수 있다. <한중록3>의 발화자 혜경궁은 발화 대상인 임오화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과 의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오화변의 “실상” 즉 실제로 일어난 일, 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낸다.

(1) 임오화변이 천고의 업는 변이라. 선왕이 병신초의 영묘기 상소호오서 “정원일기를 업시호야디라”하야, 그 문적을 업시호야시니, ... 년디 오래고 스덕을 알 니 업서가니 그스이의 니를 탐호고 화를 즐기는 브리들이 스실을 변난호고 청문을 현혹호야 혹 호덕 ... 선왕이 ... 일즉이 시비진가를 분변티 아니호시니, 이는 당신 지통으로 브득이 호신 일이라. 선왕은 다 알고 지정의 잇글려 그리호야 겨시거니와 ... 내런디 성왕이런디 경모궁 처즈로 그 망극디변을 디내고 능히 죽디 못호고 보전호 겨시 호호 의통은 존의통이오, 의리는 존의라로 호야 오늘날ㄴ디 온 일이니(15-17쪽)

10) 정병설 주석의 『원본한중록』의 경우, 「서문」과 「결어」를 구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별로 제목을 붙여 분할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결어」를 분할한 것은 결어 부분이 앞 내용을 반복 요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문」의 내용과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의 내용이 상응하기 때문에 이와 「결어」를 합하여 논의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정병설의 「서문」은 서두로 칭하고, 「사도세자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결어」를 합하여 결미라고 칭하였다.

(2) 대저 모년스로 세상의 두 의논이 이셔 다 험잡히고 상실하니 ... 두 말 이 삼도의 망극하고 실상의 어긋니 선친 슈차 말씀 궂트야 병환이 망극호셔 성공 위턱호심과 종사 늠늠히기 호흡지간의 이시니 영묘겨오셔 잇통망극 호오시나 만만 박브득이호오셔 그 처분 호오시고 ... 바른 덕로 말을 호여야 영묘 처분도 잇통망극 둥 만만 박브득이호오신 일이오, 경모궁겨오셔도 불행 이 망극망극한 병환으로 호오셔 만만 홀일업소신 터홀 당호오시고 선왕도 쫓호 잇통 각각 의리 각각으로 말을 호여야 실상도 어긋디 아니호고 의리의 도 합당호거늘 ... 스십년년의 모년 일노 통역이 혼잡호고 시비가 도치호야 지금 덩치 못호야시니, 경모궁 병환이 만만 홀일업소시고, 영묘 처분이 박브 득이호신 일이오, 일물은 선도의셔 스스로 칭각하신 거시오, 넉런지 선왕이 런지 지통은 즈지통이오 의리는 즈의리로 아라 망극 둥 보전호야 이 종사를 길게 지탱호 성은을 감축호고(144-146쪽)

서두(예문1)와 결미(예문2)에서 혜경궁은 ‘임오화변’의 기록이 정조의 간청에 의해 지워져 그 사적을 알 수 없게 되자, 이익을 탐하고 화를 즐기는 무리들이 사실을 변조하고 들은 바를 현혹하였다고 말한다. 이 무리들은 영조가 세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세자가 죄를 지어 죽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죄 없는 세자를 모함하여 죽었다고 한다.¹¹⁾ 혜경궁은 이 두 주장이 거짓이고, 진실은 세자가 병이 있었으며, 이 병이 죄를 짓게 했고, 이에 영조가 세자를 죽인 것이라 강조하면서, 병이 있다는 점을 “애통”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처분을 “의리”로 분리하여, 세자의 죽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조도 “애통망극”하지만 “부득이하게” 한 일이며, 정조도 “애통”과 “의리”를 각각 구분하고 있었으나, 정조가 “시비진가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자식으로서 “지통”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자의 죽음에 영조, 정조, 자신 모두가 사적

11) 서두에 세자를 죽게 만든 일물(뒤주)을 부친 흥봉환이 들어왔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혜경궁의 평가와 반론이 있으나, 이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으로는 애통하나 공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각 행위자에 해당하는 양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건 : 영조가 세자를 죽이다.

- 가1. 영조의 애통: 아들이 병이 있어 죄를 지으니 아버지로서 애통하다.
- 2. 영조의 의리: 세자가 병이 있어 죄를 지으니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죽이다.
- 나1. 정조의 애통: 아버지가 병이 있어 죄를 지어 죽으니 아들로서 애통하다.
- 2. 정조의 의리: 세자가 왕에게 죄를 지어 죽으니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다.
- 다1. 혜경궁의 애통: 남편이 병이 있어 죄를 지어 죽으니 아내로서 애통하다.
- 2. 혜경궁의 의리: 세자가 영조에게 죄를 지어 죽으니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건 당시를 기술하면서 특히 영조에 관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해석과는 상반되는 지점들을 드러낸다.

(3) 나의 본 거슨 목하의 벌고 지통은 가슴의 박혀시니 이제 뼈내랴 하니 영묘와 경모궁 호오던 일이 상하의 결탁이오신 듯 죄로오되, 실상을 아니 기록디 못하니, 도회를 넘호야 흥격이 막힐 분이로다(41쪽)

(4) 대도의셔 듯조오시고 조곰도 지테호오시며 즈져호오시디 아니호오시고 창덕궁 거동녕을 급히 넉오신디라(121쪽)

(5) 복위를 앓기오시고 범절을 네덕로 호오시기를 유예호오시다가, 브득이 녀일야의 복위호오시고 덕신들 넘시호야 초중절차를 덩호오시는데 처음은 빈소를 농동궁의 하자 하시니, 선친이 이 디경을 당호샤 도곰 잘못호야 일호라도 성심의 어긋오면 그쎄 성노가 불긋소오시니 넉 집 담멸호기는 들직오 세손이 보전호시디 못홀 거시니(133-134쪽)

(3)에서 혜경궁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써내려하니 영조와 사도세자의 하시던 일이 상하의 부덕을 드러내는 듯 죄스럽다고 한다. (4)에서는 대조, 즉 영조는 선희궁의 말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급히 사도세자를 죽이러 간다. (5)의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 복위도 아끼고, 장례도 유예하다가 부득이하게 복위하고 초종절차를 정하면서, 신하들이 성심을 터럭만큼이라도 여기면 불같이 화를 낸다. (3)의 “겸덕”, (4)의 “조금도”와 “급히”, (5)의 “부득이”는 영조에 대한 혜경궁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어휘로, “겸덕”은 영조의 행위가 덕이 없다는 것을, “조금도”와 “급히”는 사도세자를 죽이러 가는 영조가 어떤 애통이나 고민도 드러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부득이”는 이미 죽고 떠난 세자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는 영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세자의 죽음에 대해 ‘영조가 사적으로 애통하지만 공적 의리 때문에 부득이 하게 행한 것’이라는 혜경궁의 규정과는 달리, ‘영조가 사적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전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혜경궁이 말하는 의리는 어떠한가. 혜경궁에게 의리는 군왕인 영조를 죽이고자 한 것에 대한 처분의 마땅함이다. 영조는 왕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빼앗고자 한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혜경궁과 정조는 신하로써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공적인 입장에서 수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혜경궁의 이러한 공적 의리 또한 사건에 대한 회고와 구체적 기술에 서는 뒷면으로 숨어버린다.

(6) ‘말숨을 아른체호오시자’ 하니, ‘뉘가 이 말을 호고’ 츠지 내오시면, 날 보오는 인스가 아니 겨오시니, **내 몸의 급화가 니를 듯호기**(76쪽)

(7) 쇼턴이 아모리 들호오시나 하 망극하고 위늬호야, 님 명이 브디불각 들 어느 날 **못치일 줄 모르니, 호 밋음이 뵘옵디 말기만 원호야**, 온형호오시기 그덧 사이라도 **다행호 니** 곳더니라(96쪽)

(6)은 김한채라는 내관의 머리를 벤 사건에 대해 선희궁이 영조에게

말을 하자고 하였으나, 세자가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찾아내면 혜경궁 “자신의 몸에 급화”가 이를 것이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7)에서 혜경궁은 남편이 아무리 중하나 너무 망극하고 두려워 자신의 명이 부지불각 중 어느 날 마칠 줄 모르니, 한미음으로 세자를 “보지 말기만”을 “원하여” 온행 간 그 사이라도 “다행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왕을 죽이고자 했다는 공적 죄’에 대한 마땅한 처분이었음을 설명하는 근거라기보다는, “부지불각” 중에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자신을 위한, 두려운 나머지 남편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위한 사적인 욕구에 의한 수긍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혜경궁은 임오화변의 전모는 사적인 애통과 공적인 의리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회고하는 본문에는 ‘사적인 애통’과 ‘공적인 의리’로 볼 수 없는 상황이나 양태를 기술하여, 주장과는 상치되는 근거(구체적 사실)를 제시하는 것이다. 서두와 결미의 주장과 상치되는 본문의 구체적 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조에 대한 평가의 양태이고, 두 번째는 혜경궁 홍씨의 욕구의 양태이다.

2.2 평가의 양태

<한중록3>에서 드러나는 사도 세자에 대한 영조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1) 형용업고 지적할 곳 업는 세미호 일의 **성심이 불언 둥 격노**호오사(25쪽)

(2) 종용호 췌 친근이 안치오시고 **진정으로** 교훈호오신 일은 **과연 업소시고** 임타호게 버려 아른 테를 아니호오시다가 **미양 놀 모힌 뒤면 홍보오시** **드시 말숨을 호오시니**(33-34쪽)

(3) **저리호 일은 이리 아니호앗다** 꾸종이오시고 **이리호 일은 더리 아니호** **앗다 꾸종호오서**, 이 일의도 격노 저 일의도 불여의호오시고 지어 동뢰하거

나 한지나 턴변 지이가 이시면 “쇼도의셔 덕이 업서 이러하디” 우중이 나오 시니(40쪽)

(4) 늦게야 엇스오셔 십오세가 되야 합네마디 하게 되니 두긋기오셔 중오 로이 즈미를 보오시면 성실디, 엇디호오신 성의 오실년지 홀연이 대리호오실 념을 내오시니(36쪽)

(5) 사외호오시며 스러호오시미 거의 병환이 되오신 듯시보오시니(37쪽)

(6) 스랑호오시는 사람이 든니는 길흔 스랑티 아니호오시는 사람이 든니 디 못하게 호오시니, 극히 황공호오되 위증의 녁떡호오시미 감히 양탁디 못 호을 일이라(38쪽)

(7) 설스 아버님겨오셔 혹 과호오셔도 아드님이 다음다음 효도를 힘쓰오 시<겨>나, 아드님이 혹 못 밋즈오셔도 아버님겨오셔 갈수록 은익를 드리워 겨오시면 할디(41쪽)

(8) 너 춤아 그 안히로 처하야 이룰 옳히 호오시다 못 하나 일인즉 홀일업 순 지경이니 그저 너 쏘외죽어 모르는 거시 올흐디(121쪽)

(1)~(3)은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행동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1)은 지적할 곳 없는 작은 일에 말도 하지 않고 격노하는 영조, (2)는 “진정으로” 가르친 일은 “과연” 없고 항상 남 모인 곳에서 “홍보듯이” 세자를 훈육하는 영조, (3)은 이렇게 해도 꾸중하고, 저렇게 해도 꾸중하고, 천재지변도 소조(세자)탓을 하는 영조이다. 이 같은 영조의 행동에 대해 혜경궁은 (4)~(8)과 같이 “어찌 하오신 성의”, “감히 헤아리지 못할”, “거의 병환”, “과한”, “옳다 하지 못할”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처사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고 과하여,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혜경궁은 영조가 믿을 수 없는 위인이라는 것도 은연중에 드러낸다.

(9) “브러 그리호오시는 말씀이니 미들 거시 업스니, 필경 내가 죽고 마는 니” ... 앓가 디도의셔 유연한 턴눈으로 말씀호오시니 밋줍기를 못 호오는 흔

새 말씀이오셔도 감축하야 올고, 쇼도의셔 그 병환 둥 능히 그 말씀 호시는 불근 소견을 드러니 쏘 올니이니(85쪽)

(9)는 영조가 한 말이 “믿지 못하는” 한 때의 말이라도 감축하며, 소조가 능히 영조의 “말씀을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밝은 소견”을 듣고서 또 올었다는 것이다. 사도세자를 자애로 대하겠다는 영조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영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세자의 소견이 밝다고 하는 것은 영조에 대한 불신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영묘겨오셔 동궁이 오래 비물 넘너호오시다가 원냥을 얻즈오시고 가 열 혼희호오신 성심으로 멀니 썸나오시는 스정을 도라보디 아니호오시고 어서 동궁의 주인 겨신 것만 두긋기오샤 급히 법만 출히랴 호오시고, 나오션 디 빅일 만의 탄싱호오신 집복헌을 썸나오샤 보모만 맛긋스샤 오래 비엿던 저승던이라 흔 큰 던각으로 옴스오시게 하니(22쪽)

이러한 영조에 대한 혜경궁의 평가는 (10)과 같이 자신이 보지 못한 상황 속의 영조를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 혜경궁에게 영조는 사사로운 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궁에 “주인이 있는 것만” 기뻐하여 급히 “법만 차리고”, 태어난 지 겨우 백일 된 세자를 “보모에게만” 맡기는 위인이다. 혜경궁은 “만”이라는 조사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영조의 행동이 사도세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조에 대한 혜경궁의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독자로 하여금, 영조의 애통합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

2.3 옥구의 양태

서두와 결미에서 밝혔듯이, 혜경궁은 임오화변이 일어난 것은 사도세자의 병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본문에서 사도세자의 병에 대해 상세히 기

술한다. 기술 과정에서 혜경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욕구의 양태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사도세자에 대한 욕구의 양태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욕구의 양태이다.

(1) 그 병환이 아니 나오신 때는 인효통달 하오서 거룩하오시미 미진흔 곳이 엿스오시디가 병환 곳 나오시면 두 사람 곳즈오시던 거시니 엷디 이상하고 설운 일이 아니리오(50쪽)

(2) 그 병환증으로 심각하면 화증이 나오서 ‘어이 브르시옵느니잇가’ 하실 듯 하디, 그 병환을 능히 참소시키고 날마도 밤등이라도 브르오시는 세월 어기오디 아니하오시고(55쪽)

(3) 그 슈적이 지금 내게 이시니 그런 일은 조금도 병환이 겨오시니 곳디 아니하오시고 순성 하야 회란하오시믈 스스로 큰 경스기티 아오시더니라(63쪽)

(4) 어이 그 화증을 아니 너오시고 공손이 내려가오시던고 시브며(108쪽)

(1)~(4)는 병환이 나지 않았을 때의 사도세자를 보여주는데, 병이 나오지 않을 때의 사도세자는 “인효통달”하고, “거룩하오심”이 모자라지 않으며, 병환을 능히 참고 영조가 밤중에 불러도 “때를 어기지 아니하”는 효성 깊고, “순성”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그린다. 말하자면, 병증이 없는 사도세자는 이다지도 훌륭하니, 병이 없었더라면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가정하면서, ‘사도세자가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병증이 드러나 세자가 폭력적으로 돌변하면, ‘세자가 병이 없기를 바라’는 태도에서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태도로 변화한다.

(5) 점점 두렵고 무서운 거시 병환이 되오서 화 곳 나오시면 프오실 디 엿스오시니 너관과 너인의게나 프오시고 지어 내게기디 프오시기 몇몇 번인 줄 알리오(42쪽)

(6) 그제 당번너관 김한칙라 혼는 거슬 몬져 상하오서 그 머리를 들고 드리오오서 너인들의게 회시하오시니, 내가 그제 사람의 머리 버힌 거슬 보아

시니 흥하고 놀랍기 니를 거시 어이 이시리오.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니오신디(75-76쪽)

(7) 초죽일 그 용유를 불너다가 안검하고 호오시기를 “이후의 내기 아모 일이나 이시면 이 칼노 너를 버히리라”(94쪽)

(8) 나는 이어하야 내디 아니하디시고 셋는 거슬 바둑판을 던져 왼편 눈이 상하니 저기터면 망울이 싸져실너니 엷디하야 그 지정은 아니 되야시나 놀나이 붓고 대단하니(95쪽)

(9) 그 의디 시종을 현주의 어미가 드러니 그 병환이 점점 더하오서 그거슬 통위하오시던 것도 너스오신디라. … 그거슬 죽게 티고 나가오서, 죽익의 뒤켈서 그릇되니, 제 인심이 가련홀 뿐 아니라 제 즈녀가 이시니 어린 것들 정경이 더 참옥하디라(99-100쪽)

세자가 영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병이 되어, 화가 나면 내인이나 내관을 괴롭히고, 혜경궁에게까지 화풀이를 한다.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여 김한채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들고 들어와 내인들에게 돌려 보인 다. 혜경궁은 그 때 사람 머리 벤 것을 처음 보고서 “흥하고 놀랍기가 이를 수 없었다”고 한다. 세자의 물리적 폭력이 내관과 내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이인 화완옹주를 칼로 위협하고, 총애하던 첩 빙애를 “쳐서 죽이고, 자식까지 참혹하게 만들고”, 혜경궁에게 “바둑판”을 던져 눈을 상하게 한다. 사람을 죽이고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사도세자의 살인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세자의 병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혜경궁이 경험한 공포를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경궁에게 세자가 극도로 두려운 존재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폭력 상황에 대한 혜경궁의 공포는 세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세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태도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태도로 나아가게 한다.

(10) 설위 죽디의 죽고 시부디 죽들 못하니 너 형용이 엷지 사람의 못양

이리오 … 그저 우려는 무궁하고 일시라도 살길히 업스니, 그저 듀아의 죽기만 원히더니라(92쪽)

(11) 넋 명이 도석의 이시니 친척이 하직이나 하고져 아오와 동칭의 덕들이 드러왔더니라(97쪽)

(12) 부왕귀 힘호오신 불공호오신 말슴이 점점 가이업스오시니 이 아니 망극하냐. 모습은 놀납고 듀아로 공구하니 넋 목숨이 어느 새 엇더홀 줄 몰나 어서 대스나 디니라 하니(109쪽)

(13) 화증이 나오시면 넋관 넋인들 해야 감히 못 홀 말을 시기오시니 그것들이 죽기를 무서워 고성호야 부도지설을 하니 그저 하늘이 무섭고 춤아 망극망극하니 죽어 모르고 시브며(114쪽)

(14) 웅주도 겁을 넋야 설위라 하며 불공지언을 하니 나는 춤아 듯지 못하고 지스위호호야 감히 거드온 일 업노라(115쪽)

“서러워 죽시에 죽고 싶되 죽지 못하고, 살길이 없으니 그저 주야에 죽기를 바라며, 자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족에게 하직 인사나 하기를 원한다”는 혜경궁의 죽고자 하는 욕구는 사도세자의 “부왕에 대한 불공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더욱 강렬하게 표출된다. 사도세자는 영조를 향해 “불공”한 말을 하고, 내인들과 화완옹주에게 감히 못할 “부도지설”을 하도록 위협한다. 할 수 있는 일은 “감히 거들지 않는” 것뿐, 혜경궁에게 이러한 광경은 어떤 탈출구도 없이 “목숨이 어느 때 마칠 줄 모르는”, “죽어 모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두려운 지경인 것이다. 사도세자의 영조에 대한 불공한 언사를 혜경궁이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사도세자가 처벌받는다면 혜경궁과 아들 정조도 무사할 수 없으며, 만약 세자가 역모로 죽게 되면 혜경궁과 정조도 역모죄인이 되는 것이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은 혜경궁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5) 태왕가 부즈간이 즈고로 어려운디 흐들며 병환 둥이오시고 당신은

유시브터 즈익릴 못 밧즈온 일이 지흔이 되야 거오신디 그 아들만 일긋즈오시니 그 격화 가온디 엇디하시리오 세손 흔 몸의 종사 존망이 이시니 평안호셔야 이 나라이 보전을 홀 거시니 세손을 무스게 홀 도리가 그 연설 비압디 아니하기에 이시니(98쪽)

(16) 만일 세손 칭찬호오시던 상교를 바로 보왔더면 세손귀 놀나온 일이 어느 디경의 니르러실 줄 알리오(99쪽)

혜경궁은 10세가 되자마자 궁중에 들어와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을 뚜렷이 지켜보았다. 세자의 병은 부자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일반 사가와 달리 “왕가의 부자 사이가 자고로 어렵다” 못해 세자가 죽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영조와 세자의 갈등의 여파가 아들 정조에게까지 미쳐서, 세자가 정조를 죽이거나, 영조에게 지은 세자의 죄에 연루되어 정조가 죽게 될 상황에 놓이자, 혜경궁은 “세손(정조)을 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다.

(17) 당신 도리가 성궁을 보호호옵는 디의가 옳코 임의 병이 홀일업서시니 출히 몸이 업는 거시 옳코 삼중혈벽이 세손귀 이시니 천만번 스랑호야도 나라를 보전호기가 이 밧기 없다 호오셔(120쪽)

(18) 선희궁이 가오셔 우오시며 고히오시디 “병이 점점 겁혀 브랄 거시 업스오니 쇼인이 춤아 이 말슴을 정니의 못호을 일이오디 성궁을 보호호옵고 세손을 건지와 종사를 평안이 호옵는 일이 올스오니 대처분을 호오쇼서”(121쪽)

(17)~(18)은 사도세자의 생모 선희궁의 발화이다. 선희궁은 사도세자의 병이 어쩔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 “차라리 몸이 없는 것이 옳고”, “대처분”만이 “세손을 건지고 종사를 평안이” 하는 일이라고 영조에게 말한다. 혜경궁은 세자를 죽이라는 선희궁의 발화에 대해 어떤 비판이나 평가를 가하지 않고, 만류하지도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선희

궁과 혜경궁은 그것이 정(情)으로는 못할 일이라 하더라도 세손을 살리고자 세자를 죽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3. 발화 세계의 충돌과 변형

이상에서 <한중록>의 다양한 발화 양태 중, 진리, 평가, 욕구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발화자나 행위자의 양태는 그들의 세계를 드러낸다. 우선 진리의 양태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는 발화자나 행위자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것,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과 꾸며진 것, 거짓으로 여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평가의 양태로 드러나는 세계는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욕구의 양태로 드러나는 세계는 이루어지거나 있기를 바라는 것, 혹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계는 발화자나 행위자에 따라 각각 구성되며 같은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세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한중록3>에서 혜경궁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사도세자가 병에 걸린 것, 죽은 것이 애통하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이 의리로 볼 때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혜경궁은 만약에 사도세자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세자의 기행은 없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혜경궁이 거짓으로 여기는 것은 세자가 병이 없었는데도 죄를 지어 죽었다거나 세자가 병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당해 죽었다는 세인들의 말이다. 혜경궁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이때 표출되는 것이 평가와 욕구의 양태이다.

문제는 서두와 결미의 ‘진리의 양태’가 구성하는 세계(이하 세계1)와 본문의 ‘평가와 욕구의 양태’가 구성하는 세계(이하 세계2)가 충돌하면서 혜경궁의 분리된 세계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혜경궁은 세계1의 진리값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세자의 병증이 있었고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으므로, 사도세자의 병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병증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혜경궁이 병증의 원인을 영조의 부당한 처사 때문인 것으로 기술하면서, 결국 영조는 자신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비참하게 죽이고, 죽고 난 뒤 장례마저도 미루고, 세자의 자식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보내면서까지 사도세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인물이 되어버린다. 영조의 행동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애통하지만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죽인 영조’라는 세계1의 믿음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영조의 행동은 혜경궁의 바람으로 표출되는 세계2를 도출한 원인이기도 하다. 영조로 인해, 혜경궁은 세자가 병이 없기를 바라게 되었으며, 영조로 인해 세자가 죽기를 바라게 된다. 혜경궁은 영조가 세손 정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사도세자가 아들 정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도세자의 영조에 대한 불공한 언사와 행동이 극심해져, 언제든 영조가 사도세자를 역모로 죽이고 그 여파로 혜경궁과 정조까지 죽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혜경궁은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사도세자가 죽기를 바라는’ 태도로 나아간다.

결국 병증의 원인과 구체적인 실태를 보여주고자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제시했으나, 이 구체적인 기술은 영조가 부덕한 아버지임을 드러내고 세자가 죽기를 바라는 자신의 욕구를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세계1에서 제안한 ‘사적으로 애통한 일’이라는 명제의 진리값이 참이 아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혜경궁의 평가와 욕구의 양태로 표출되는 세계2는 세계1의, ‘불충(불효)를 행한 신하(자식)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공적 의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충한 신하나 불효한 자식이 죽는 것이 공적 의리라면, 부도덕한 왕이자 잔인한 아버지가 불충과 불효를 빌미로 자식을 죽이는 것도 공적 의리인가? 아내와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남편이 죽기 바란다면 이 역시 공적 의리인가? 선희궁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조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도세자를 죽이러 간다. 또한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

서 아들 정조는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혜경궁은 지켜 보기만 할 뿐이다. 구체화된 세계2에서 보여주는 영조의 부덕한 처사와 혜경궁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마땅함을 공적인 의리로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바라는 죽음’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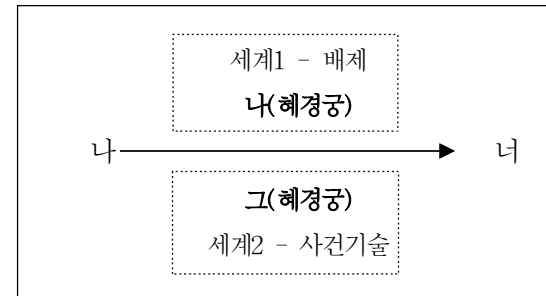
세계1의 진리의 양태는 세계2의 평가와 욕구의 양태에 의해 전복된다. 세계1의 명제 ‘사도세자가 죽어서 애통하다’의 진리값은 세계2의 ‘사도세자가 죽어서 애통해하지 않다’와 충돌함으로써 진실임이 부정되고, ‘사도세자에 대한 처분이 마땅하다’는 공적 의리는 ‘사도세자가 죽기를 바란다’는 사적 욕구로 변형된다. 말하자면, 세계2의 평가와 욕구의 양태는 세계1의 사적 애통을 일반화된 공적 애통으로, 공적 의리를 사적 의리로 변화시킨다. 평가와 욕구의 양태는 혜경궁이 구성한 세계1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세계1의 진리값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한중록3>에서 구성되는 혜경궁의 두 세계가 이러한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세계가 지닌 발화 대상의 속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중록3>의 서두와 결미에는 혜경궁이 손자 순조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실상임을 알리고자 쓴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두와 결미로 드러나는 세계1에서 발화 대상은 발화자 자신이 말하는 것, 즉 발화자의 입장이 된다. 여기서 전달되는 것은 발화자 혜경궁 자신의 태도이다. 이 같이 발화자 자신이 발화 대상이 되는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혹은 피화자와의 개인적·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습,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개인적 이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의 ‘나’는 강조되고 개인적 ‘나’는 배제되기도 한다. 피화자를 비롯하여 사회가 수긍할 만한 지점을 찾아,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세계2에도 세계1의 소통상황이 전제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발화내용이 포함된다. 세계2는 혜경궁이 자신의 말이 실상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세계이다. 이 세계의 혜경

궁은 과거를 경험하는 행위자 중 한명으로, 발화자 혜경궁은 ‘행위자 혜경궁’을 영조나 사도세자와 같이 사건과 관계된 ‘인물’로 전달하게 된다. 사건 기술 과정에서 드러나는 혜경궁은 피화자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소통의 참여자가 아니라,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자로서 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2에 속한 혜경궁의 양태는 사건 속에 놓인 행위자로서의 양태이다.

말하자면, 세계2는 경험한 사건을 조직하는 행위자로서 상황 속의 자신이 그대로 표출되는 과정이고, 세계1은 발화자로서 소통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불가능한 것은 배제한 결과물이다. 세계1에서 ‘나’는 개인적 반성과 사회적 반성을 바탕으로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여러 요소들을 배제하면서, 기존 틀에 맞고 보편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식되는 것만을 드러내고, 세계2에서는 객관화된 ‘그’의 경험적 현실을 사건의 일부로 제시하는 것이다.



혜경궁의 세계2는 세계1에서 제안하는 도덕율에서 배제된 지점을 드러낸다. 혜경궁 스스로가 배제한 혜경궁의 현실은 왕이 부덕할 때 신하가 따르는 것이 충인가, 아버지가 부덕할 때 아들이 따르는 것이 효인가, 남편이 부덕할 때 아내가 따르는 것이 열인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즉 세계1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말해지지만 존재하며, 올바르지 않으나 실제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것이다. 세계1에 제시된 혜경궁

의 양태는 도덕적이고 일반화된 정서를 토대로 이상화된 것, 즉 가문과 나라에 대한 효와 충에 근간을 둔 이데올로기적 당위성으로 틀 지워진 인식을 드러낸다면, 세계2에 제시된 혜경궁의 양태는 현실적 고통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상화되고 이데올로기로 둘러싸인 당위적 세계를 변형시킨다. 이러한 충돌과 변형은 스스로가 구성한 세계1의 진실이 공허한 거짓임을 드러내며, 세계1에서 제시한 이상과 같이 구성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혜경궁의 〈한중록〉 세 번째 회고록을 대상으로, 발화자 혜경궁의 발화 양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중록3〉에는 다양한 양태가 드러나는데, 그중 두드러지는 것은 진리, 평가, 욕구의 양태이다. 진리의 양태는 애통과 의리로 집약되어 영조, 정조, 혜경궁 각각의 태도로 제시되지만, 이는 발화자 혜경궁의 해석에 의해 규정된 양태이다. 평가의 양태 중 부정적인 것은 영조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혜경궁은 영조의 부정적인 태도가 사도세자의 병증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욕구의 양태는 주로 혜경궁 자신과 사도세자에 대한 태도에서 표출된다.

이러한 진리, 평가, 욕구의 양태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 혜경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1과 세계2로 나누어지는데, 진리의 양태는 세계1의 표출이고, 평가와 욕구의 양태는 세계2의 표출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모순적이다. 세계1에 제시된 혜경궁과 영조의 애통과 의리는 세계2에 제시된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통해 붕괴되고 변화된다.

〈한중록3〉에는 혜경궁이 믿고자 했고 드러내고자 했던 이상화된 세계와는 무관하게, 현실적 인간으로서의 혜경궁을 보게 된다. 영·정조 시대에 표면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가졌던 혜경궁은, 임금에 대한 의리라는 명목 하에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은을 말해야 했던 세자

빈으로서,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는 딸로서, 폭력적인 남편의 위협 속에서 고통 받던 아내로, 자식을 지켜야했던 어머니로서, 시대를 넘어 여성으로서는 최악의 사회적 삶을 살았다. 이러한 최악의 사회적 삶을 살았던 개인으로서의 혜경궁은 폭력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초래한 근원을 비판한다. 그러나 폭력 상황의 근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세계를 공적이고 이상화된 세계로 포장하게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주석, 문학동네, 2010.

2. 단행본 및 논문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11, 1~490쪽.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1~394쪽.

박윤호, 「한일 여류일기문학의 자기서사적 특징 : 『한중록』과 『가게로닛키(蜻蛉日記)』의 허구의 죄의식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64집,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2013, 151~169쪽.

박언주,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모성경험의 구성과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3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4, 173~212쪽.

손태수,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횡단성 연구 : 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통권11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43~269쪽.

이금희, 「치유적 관점에서 본 〈한중록〉」, 『한중인문학연구』 제31호, 한중인문학회, 2010, 99~118쪽.

_____,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 정조 즉위 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357~381쪽.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5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1~278쪽.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42~46쪽.

_____,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문학적 성격II-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제2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27~47쪽.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71~198쪽.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한중록에 관한 제안적 독법」, 『여/성이론』 통권 제1호, 1999, 122~139쪽.

최성환, 「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 『역사교육』 115호, 역사교육연구회, 2010, 129~164쪽.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150쪽.

_____, 『의미와 설화성』: 텍스트 의미론 강의 II, 인간사랑, 2006, 1~314쪽.

Rastier, François, *Meaning and Textuality*, (trans.) Rrank Collins & Paul Perron,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 1~352.

Abstract

An Analysis on modality of speech in *Hanjunglok*

Kim, Bo-hyeon

This study analyzes the addresser Hyegyeong's attitude to speech objects, that is to say speech modality based on her third memoirs of *Hanjunglok*. In her third memoirs of *Hanjunglok*, Hyegyeong reveals various modalities in regard to the main incident Imohwabyeon, I concentrate on the modalities of truth, evaluation, and desire.

In the modality of truth, as the right truth value, the death of Sadoseja is very deplorable incident personally, but it is reasonable for the loyalty officially. The truth value is applied to the actors, that is Yeongjo, Jeongjo, and Hyegyeong in common, but it is deducted modality by the Hyegyeong's interpretation. In the modality of evaluation, the Yeongjo's act is appeared negatively and Hyegyeong considers that it caused the Sadoseja's symptoms of a disease. In the modality of desire, Hyegyeong wants Sadoseja to be healthy, and Hyegyeong has change in attitude that she wanted to die first, but lately she wanted Sadoseja to be dead.

The modality of evaluation and desire shows the divided world recognition of Hyegyeong crashing into the modality of truth. The modality of truth is expression of idealized world consisting of generalized personal grief and ideologized official loyalty, and the modality of evaluation and desire is expression of real world consisting of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a torment to

irresoluble limit. The real world which Hyegyeonggung gives shape to throws a doubt on moral law supposed by idealized world, revealing that the idealized world prescribed by herself is empty and wrong world.

Key words : Hanjunglok, addresser, modality, idealized world, real world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